전북온라인학교, 김제서 문 열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앞두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 제공… 학습 환경 구축 마쳐
2학기에 35개 강좌 개설… 17개 학교에 온라인수업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서거석 교육감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나인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온라인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김제에 있는 전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원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으로 제공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설립됐다.

지난 3월 1일 개교한 전북온라인학교는 1학기 산서고등학교 등 13개교 220여 명의 학생에게 '물리학', '인공지능 기초' 등의 강좌를 개설해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통한 과목 이수를 지원했다.

7월 말까지 1인 미디어실과 온·오프라인 강의실, 호리존스튜디오 등 최신 에듀테크 설비와 학습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2학기에는 35개 강좌를 개설해 17개교, 320여 명의 학생에게 온라인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2학기 개강과 함께 열린 이날 개교식은 학생과 학교에 더 다양하고 더 탄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투어를 통해 새롭게 구축된 전북온라인학교 온라인스튜디오 시스템과 첨단 에듀테크 설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참관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온라인학교 설립은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김제=곽노태 기자

13일 서거석 교육감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나인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에 위치한 전북온라인학교 개교식이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우석대-전북자치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협의회 '맞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전북특별자치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협의회가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교육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조현철 입학처장과 채현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협력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생 성장 조력 등이다.

조현철 입학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협의회와 함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현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회장도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대학 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원광보건대학 백준흠 총장(사진 왼쪽부터),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서거석 교육감, 우석대학교 박노준 총장, 등이 맞손을 잡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늘봄학교에 지역대학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북자치도교육청, 전주대 등과 협약 체결
RIS 통해 발굴된 프로그램, 9~12월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적극 협력한다.

전북교육청은 13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주대학교(박진배 총장), 우석대학교(박노준 총장), 원광보건대학(백준흠 총장)과 '대학 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대학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호협력 △지역대학혁신사업(이하 RIS사업) 사업을 통해 발굴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늘봄학교에 제공·홍보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학 협력기반 RIS사업 자율과제로 도내 3개 대학(4개팀)이 발굴한 과제다.

전주대는 드론축구, 우석대는 움직임 정원 놀이, 원광보건대는 뷰티디지인 아트플레이와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한층 내실화될 전망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협약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늘봄학교에 제공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더욱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질 좋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지역 대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기관간 협력사업 논의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북자치도·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TBN전북교통방송, KBS전주방송총국 등 7개 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협의회에서는 △하반기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기관별 협조사항 △PM(개인 이동형 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 및 계도 △교통안전 캠페인, 방송 제작과 같은 홍보활동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3월 '안전 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LED 바닥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승하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과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 기관간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안교육 질적 제고

전북교육청, 하반기 대안교육 위탁 기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2024 하반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도내 17개 전체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소속 전문인력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의 질 제고가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부적응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연수를 운영하는 등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세우기 특강 △운영 및 회계 집행 지침 교육 △학생 안전교육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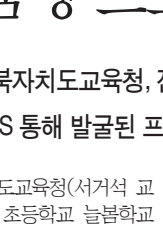
도내·외 우수 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와 투명한 예산 집행, 학생 안전관리 등 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채현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협의회장은 "교육청 연수와 컨설팅이 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역량을 키워 안정적인 대안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협력해 학업중단 예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통합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보호복 적용 메타 섬유 개발 나섰다

전북대 김건우 교수 연구팀, 과기부 나노미래소재원천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김건우 교수(공대 유기소재섬유공학과)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나노 및 소재기술 개발사업(나노미래소재원천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김 교수팀은 공공 안전을 위한 나노 분야 미래소재 기술 개발에 나선다.

나노미래소재원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나노소재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지원과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나노 및 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산정으로 김 교수팀은 최대 37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8년 12월까지 '메타패브릭을 활용한 열쾌적성 및 항바이오 성능이 증진된 개인보호장비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는 자연에 있는 일반적인 물질과는 달리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인공물질인 '메타물질'을 섬유에 구현해 체온조절이 용이하고, 항균 성능이 탁월한 메타 페브릭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팀은 이를 통해 이러한 특성이 꼭 필요한 공공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교수가 총 연구책임을 맡고, 참여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최동윤 박사 연구팀), 세종대학교(정재희 교수 연구팀), ECO융합섬유연구원 국방안전보호소재연구센터(김영운 센터장), 유진한일합섬(최형호 연구소장) 등이 공동으로 팀을 이뤄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건우 교수는 "섬유기반의 메타소재를 가시광, 근적외선, 원적외선의 파장 영역대에 따라 각각 다른 광학특성을 갖도록 설계함으로 섬유의 열쾌적성 및 항균 성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을 보호복 등의 개인보호장비에 우선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재직 동문 간호사들, 후배사랑 '한마음'

전북대에 대학발전기금 기탁

전북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동문 간호사 103명이 발전기금 5,435만원을 대학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13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정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전북대 간호대학 동문 회장), 양경희 전북대병원 간호행정과장을 비롯한 103명의 동문들은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

전북대 간호대 동문들은 지난 2017년에도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1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모았으며, 그 중 전북대병원 재직동문 간호사들이 6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정희 동문회장은 "우리 동문들이 모교에서 받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이어주고자 한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학생 중심 대학을 실현하는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성장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은 13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 동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양오봉 총장은 "후배를 향한 선배들의 진심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애정과 관심, 응원이 담긴 이 기금으로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전북대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간호대학 지정기금으로 후배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12집 발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12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공존의 인간학' 제12집에서는 '경계 안팎의 정착과 표류'라는 주제로 기획 논문 3편과 일반논문 7편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현재 공존의 인간학 13집 발간(2025년 1월)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 성과를 12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